제 90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council.gb.go.kr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5. 5. (제277회 임시회)

4월 23일(목) 16:30 독도에서

제277회 임시회 개회사

독도를 우리 손으로 수호한다는 결의와 다짐을 재천명

존경하는 3백만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독도를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주낙영 행정부지사님,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 곳 독도에서 제277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는 3백만 도민은 물론 7천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반드시 우리 손으로 수호한다는 굳은 결의와 다짐을 재천명하기 위해 우리의 땅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 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상호신뢰와 존중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으나, 일본은 겉으로는 동반자적 한 · 일 관계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독도영유권을 명기한 중학교과서 왜곡 검정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 발표,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명기, 다케시마의 날 연례행사 등 시간이 갈수록 독도에 대한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본의 억지주장과 경거망동을 사전에 차단하여 어리석은 독도강탈 야망을 분쇄하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도의 달 조례』,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 조례』,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도지원센터, 방파제 건립 등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울릉도 · 독도를 해양과학 연구의 전진기지, 해양생태 연구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독도 임시회 개최를 비롯한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 등으로 매우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안 심사시 도민의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살펴보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울릉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23.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경상북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현지 확인 및 민생관련 각종 안건 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 개회는 4월 23일 독도에서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집행부 공무원, 취재 기자단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굳건한 영토수호 의지를 밝히기 위해 독도에서 개회했다.

4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2014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경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고,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14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Contents 차례 지면안내

화보 4월 23일(목) 16:30 독도에서	1면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집중 인터뷰 김명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4면
특별기고 경북도의정포럼의 의의와 과제	5면
상임 ·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6~13면
5분 자유발언 남진복 의원 · 박용선 의원	14면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4면
주요 처리안건 소개	15면

의정만평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 장대진 기획 · 편집 | 장영호, 임필규
편집인 | 정병윤 발 행 처 |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경북도의회가 막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4월 23일 독도에서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관계 공무원, 취재 기자단 등 모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대회를 했다.

이번 임시회 독도 개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굳건한 영토수호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독도 선착장에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전복 치패 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 독도 선착장에서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다음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대회를 했다. 도의원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독도 수호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채 규탄 결의문을 낭독한 다음 대형 태극기를 펼치고 독도 수호 퍼포먼스를 했다. 결의 행사 이후에는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경북 · 전남도의회, 새로운 통합의 미래를 시작하다!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5월 27일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전남도의원 및 경북도의원, 관계공무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회와 2015 전남 · 경북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열었다.

이번 화합대회는 지난 3월 10일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 체결에 따른 세부실천과제의 하나로 열리는 행사로 전남과 경북 의회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양 지역의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이 전남과 경북의 시원한 소통을 기원하는 "소통 뻥" 시축 이벤트에 이어 의원과 직원들을 유사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한 6개 팀으로 나눠 체육대회를 했다.

체육대회 이후에는 드림아카데미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화합한마당 행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정병걸 전남도 부교육감도 참석했다. 양측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상생발전을 약속하는 서명을 했다.

전국최초, 경상북도의정포럼 실학의정(實學議政) 구현에 앞장선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월 8일에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의정포럼의 위원들 중에서 선출된 7명의 분과대표와 함께 경상북도의정포럼 분과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의회의 주요현안 및 의정포럼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상호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의정포럼 분과대표들은 의정포럼이 도민을 위한 도의회차원의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현장에 직접 쓰일 수 있는 실학적인 답을 추구하고자 하는 실학의정(實學議政)에 뜻을 같이 모았다.

한편 전국의 지방의회 중에서도 대규모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포럼제도를 만든 것은 경상북도의회가 처음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대토론회 개최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5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원들과 관계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의회뿐 만 아니라 타 권역 시도의회에서도 참여하여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상북도의회,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5월 11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으로 30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다.

도의원 3명 포함 9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 출장 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경북도의정포럼의 의의와 과제

이철우 경상북도의정포럼 대표/경북대 교수

지난 3월 경상북도의정포럼이 출범했다. 의정포럼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교수, 시민단체, 기업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 9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의정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부활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그야말로 '자치'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자치가 오히려 퇴보하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지방자치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보다는 단체자치에 가깝다. 즉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북도의정포럼이 그 창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지역사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적은 또 다른 이유는 지방의회 입법권 및 권한의 제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입법권과 권한을 확대해야하는 것은 오롯이 의회의 몫이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정치집단은 없었다.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자양분은 단지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주는 가장 고차원의 제도는 비분권형 헌법이다. 분권형 헌법으로의 개정은 '지역주민의 총합(total sum)으로서의 국민'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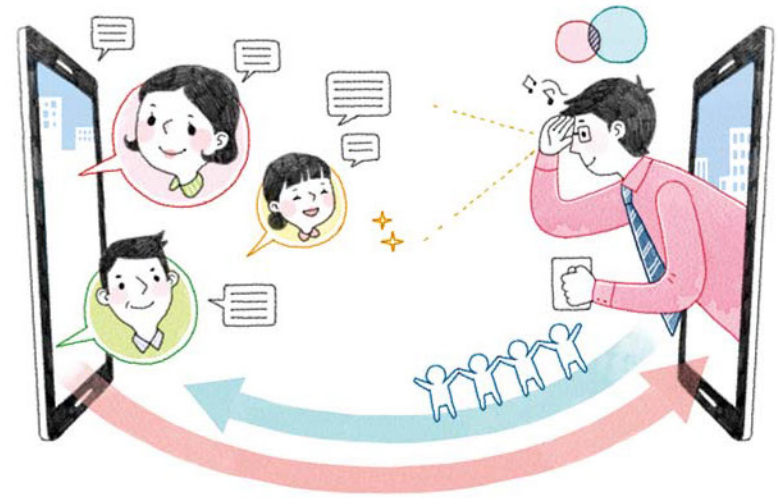
분권형 헌법개정, 국가균형발전, 환경문제 등과 같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부처, 지역, 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과 교육 그리고 인 · 허가 문제, 특히 국제관계상 중앙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 '독도문제'와 같은 특수성을 가지는 문제 등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는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수행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날로 다변화 · 전문화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현재의 지방의회 체제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정포럼은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정포럼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의정포럼은 의정 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 개정을 비롯한 입법정책 발굴과 자문,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도의회의 대응논리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창조적 경로파괴를 통하여 '제대로'를 만들어가는 의정포럼이 되기를 기대하자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정포럼 운영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의 창구역할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사라져간 기존의 수많은 포럼의 경로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의정포럼 운영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포럼위원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가 앞장서서 멍석을 깔아야 한다. 오히려 포럼위원, 즉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욱이 포럼이라는 것은 특정 주체가 운영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운영체계라는 멍석을 깔아 놓고 포럼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포럼위원들이 참여한 후에 스스로가 도의회 활동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의정포럼의 운영을 운영위원 및 그 대표자에 위임하면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경상북도의정포럼은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전문가 집단으로 의정활동 자문과 정책지원을 위해 포럼이 구성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은 결코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필요조건을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의정포럼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 지방의회 활성화의 충분조건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경상북도의정포럼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위해 99명 의정포럼 구성원들은 기존의 'ㅇㅇ위원회' 위원으로서 답습했던 경로를 과감하게 이탈하여 우리나라 지방의정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기를 기대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차질없는 신청사 이전을 위한 "2015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경상북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는 한편, 제278회 제1차 정례회는 6.10일부터 6.26일까지 열어 도정질문, 결산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금번 "2015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에 비해 21억원 정도 증액된 175억원을 편성, 이는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홍보기능과 입법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신청사 이전 및 관련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 가결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는 의회사무처로부터 신청사 상임위원회 배치계획 및 신청사 홍보 · 역사관 디자인에 대해 간략히 보고 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홍진규 운영위원장은 "금년도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의정포럼, 영호남 상생 화합교류 행사, 조례일제정비, 의회 신청사 이전 등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바쁜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특히 의회 신청사 이전은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차질없는 이전준비로 의회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위원들과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광주에서 열려

전국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인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군위)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간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건의안 채택 등 4건의 안건을 채택했으며, 그 밖에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관계자와 전국 운영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 발전과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

1. 제2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 전국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1

조례안 등 안건심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28~29일 11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결의안, 동의안 각 1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 · 의결했다.

28일 실시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도기욱(예천군) 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전국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는 50%(파리 20%, 동경 30%) 금융 70%, 대기업 본사 84% 등이 밀집되어 있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중앙정부 계획에는 지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약한 힘이지만 경상북도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태식(구미시) 의원은 "같은 곳에 있는 도 소유와 시 소유의 하천부지 사용료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할 것"을 촉구했다.

박현국(봉화군) 의원은 "대경연구원의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 시행하는데 아무리 비영리 법인이라지만, 운영비로 양기관에서 66억원을 별도로 지원 받는 것은 기관의 비대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와 조직의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당초예산 심사에서 신규전략사업 발굴연구 용역비가 1억원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증액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며 불과 몇 개월 후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는 안일한 업무태도를 꾸짖기도 했다.

다음날 계속된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박성만(영주시) 의원은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울릉도만 할 것이 아니라 독도를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끌고 사업성공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 고 주장했다.

장두욱(포항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의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원자력은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에너지로 유휴 공공시설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규(칠곡군)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계획은 좋으나 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져 사업취지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에너지 문제 해결할 유일한 대안

기획경제위원회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결의안, 조례안 등 심사

2

3

1. 4월 23일 독도에서 독도수호 결의를 다졌다
2. 4월 2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조례안을 심사했다
3. 4월 2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예산 없어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과의 사전 소통 필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황이주)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양일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했다. 먼저, 안전행정국 심사에서 남진복(울릉) 의원은 3.1절 및 광복절 행사 예산과 관련하여 청사 전면 태극기 부착 등은 전시성이 아니냐며, 태극기 달기 운동이 취지라면 차라리 시 · 군별로 나누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립대학교 심사와 관련하여 김봉교(구미) 의원은 학생들의 열악한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공사비는 사전 수요예측 분석과 행정적 절차의 적기 이행으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교수진 임용에 대하여 캐묻고,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지만 전공학위 취득 유도 등 전공 불일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심사에서는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은 경북새일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취업률을 향상에 앞장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이직률이 높다며, 직원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는 5월중 개교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계획 등 청사진이 없는 것 같다며, 향후 운영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가 낮으므로 실적 제고방안을 높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다문가족 지원센터, 아동 쉼터, 청소년 쉼터 등이 특정 시 지역에만 거점센터 형식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도내 주요 중소도시에도 지원센터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기능의 기관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황병직(영주) 의원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과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단체에 대한 중복 편성된 예산이 많다며 통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호(포항) 의원은 주요 신규 · 증액사업의 상당수는 운영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했으며, 의료원 경영컨설팅 사업의 경우 기존 도 산하 행복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과 유사함을 지적했다. 김정숙(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의 도비, 시 · 군비 보조비율이 상이함을 지적하며 기준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중복성 예산에 대하여는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예산이 없음을 꼬집고, 집행부에서는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과의 사전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1

기능 · 역할 유사단체 중복편성 예산 多 통합방안 강구 필요하다!

조례안 심사

그 밖에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진락(경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안을 유보했다.

또한, 정영길(성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조문 중복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고, 이정호(포항)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발의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

1.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독도 현지방문

문화환경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1. 2015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2. 제7차 세계물포럼 현장 방문

주요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 체계적이고 계획성있는 예산 편성 촉구

신규사업 · 민간이전경비 등 과다 편성 지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28일(화)부터 29일(수)까지 이틀간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등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먼저, 28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물 검사소 운영을 위한 일부 장비 · 기기 구입비가 당초 계획과 달리 일괄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이로 인해 유해 농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농수산물 검사소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장비 구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최종 단계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공항, 철도 등 주요 교통지점에 경북도 관광명소를 알리는 홍보 광고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도내 천주교 시설 및 성당을 이용한 『소울스테이』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향후 대상시설 선정시 도내 소재한 천주교 단체와도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예산 편성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묻고 적정하게 비율 수준을 맞추어 줄 것을 주문했다.

29일 실시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먼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대구와 경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향후 경북도 물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post-물포럼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환경의 날』 행사를 범국가적인 행사로 격상시키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과 도민 휴양 · 힐링 공간에 편백나무 등 도유림 등을 적극 활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사전에 분석 ·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시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대상 전 부서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반적으로 본예산 못지 않게 신규사업이 과다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이전경비가 적지않게 계상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추경예산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각 사업에 대해 사전 면밀한 분석 · 검토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 의결

그리고, 위원회는 최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과 장용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지난해 도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제출되었다가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한차례 보류되었던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농수산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울릉군 주요 사업장 및 기관 방문해 현장실태 파악하고 경상북도의정포럼 농수산분과회의 활성화 방안 논의해

무분별한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추경예산 편성 지양해야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 전개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지난 4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울릉군에서 독도 영유권 강화 인프라 확충 주요 사업장 및 해양관광단지 조성 현장과 도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등 소관 기관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24일은 독도영유권 관련 사료를 보존 · 전시하고 연구하는 독도박물관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청취한 후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위원들은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역사의식 고취와 국내 유일의 영토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박물관 직원과 울릉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천부 해중전망대 등 천부리 해양관광단지 사업현장과 현포리 소재 울릉도 · 독도 해양연구기지를 방문해 현장 실태를 확인했고, 다음날인 25일 오전에는 저동항 시찰 후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를 방문해 업무현황 보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영길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활동에서 얻은 지식과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포럼 농수산분과회의 본격 활동

그리고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와 의정포럼 농수산분과회의(분과대표 전한식)는 4월 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양측 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정포럼 농수산분과회의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6일 출범한 의정포럼 농수산분과회의는 농업 · 해양 · 수산 분야의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새로운 정책제시와 의정활동 자문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날 회의에선 향후 내실 있고 효과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과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본격 논의했다.

조례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또한, 농수산위원회는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8일과 29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과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어업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어업 육성을 위해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에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 홍보와 경쟁력 있는 농산업 육성,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시설관리, 가축전염병 백신개발, 한우농가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사업 및 지역별 가축시장 개설 확대, 동해 수산자원 보호와 서식장 환경개선 관심제고, 해양수산 분야 용역사업 확대, 농수산 분야 예산 규모 증대 노력 등을 주문했고,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삭감, 보조사업 지역 편중, 국고보조금 반환 증가세, 행사성 사업의 실효성,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의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 적정한 사업평가와 대책수립 등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1

2

3

1. 농수산위 현지확인(독도박물관)
2. 의정포럼 농수산분과회의
3. 조례 및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건설소방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1. 2015.4.25 울릉일주도로 현장(저동터널) 안전점검
2. 2015.4.28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심사
3. 2015.4.24 울릉119안전센터 현지방문

울릉 119안전센터 업무보고 청취, 울릉일주도로 미개설 구간 등 실태점검

봄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으로 안전시공과 재난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 업무보고 청취, 울릉일주도로 미개설구간 및 확장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를 방문, 당면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고 격려하였으며, '섬'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는 만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울릉공항과 사동항 등이 건설되면 독도 탐방이 쉬워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구조 · 구급, 화재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비해 사전 대응책 마련도 주문하였다. 또한, 울릉일주도로 공사현장을 방문, 공사추진현황을 듣고 사업장내 터널 시공에 따른 지반의 균열 · 침하 · 세굴 등의 발생여부 확인과 상부사면의 낙석 발생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화산섬 토질의 구조적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실시공이 없도록 안전시공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위원장은 "울릉공항 건설확정 등 향후 늘어나는 소방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 안전은 물론 관광객이 더욱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소방당국에 있다"며 "울릉일주도로사업에 대해서 지리적 환경적으로 열악하지만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제안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제277회 임시회 활동기간 중인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제안했다.

도청신도시본부 심사에서 도청이전이 당초 준공계획보다 6개월이나 지연됨에 따라 분야별 사업예산 대부분이 추가로 증액 계상되었다고 지적, 신청사 공용공간 인테리어공사도 내집 짓는다는 자세로 철저히 추진하라고 주문, 청사 환경조성 중 조경수 식재와 청사 방호시설 등은 매우 미흡, 도청이전 신도시 분양홍보 기념품 홍보비의 세심한 검토, 원주민 직업전환훈련시 대부분 고령자인 원주민을 고려해 직업과정 선택시 사전 설문에 의한 적정한 과정을 개설할 것 등 많은 주문과 지적을 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소방청사 신 · 증축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계상되었고 소방헬기 기체 재생검사비 5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 정기검사로 인하여 부족한 헬기 수요는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및 보완토록 촉구했다.

구미 봉곡 119안전센터 신축, 성주 선남119지역대 이전신축, 칠곡 동명119지역대 이전신축 건물의 연면적이 획일적으로 759㎡인 것을 지적하면서 주변 소방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지역균형건설국 심사에서는 울릉일주도로 조기 건설, 하천기본계획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 · 군도로 및 농어촌도로는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했고 종합건설사업소 청사이전비의 예산절감 노력, 한옥모델모형제작과 포럼 등으로 경북형 한옥사업이 경쟁력 있도록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널리 알려진 낙동강 이외의 형산강 및 금호강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거듭 주문하였으며, 청도 경산간 국지도 건설사업이 착공한지 12년이 되었지만 아직 마무리가 되지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자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교육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경북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공급 현장 방문을 통한 의정 활동

1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조례안 심사

교육위원회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장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물질 등 여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 시행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의 실태검사 실시 및 그 결과를 해당 학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 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 시에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장경식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수준이 한 단계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2

3

1. 경북과학고 이전 검토부지
2. 울릉도 방문
3. 조례안심사

현지 방문

교육위원회는 제277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를 마친 뒤 24일 울릉 기숙형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의 현장을 방문했다. 울릉교육청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받은 후 앞으로의 학생 수 변동 추이와 건축물의 친환경성,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했으며, 향후 학교가 개교되면 통학차량 운행, 학교시설 현대화, 우수교원 확보 등으로 울릉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육지학교 이상의 명문중학교 도약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29일에는 포항 지역 3개 학교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철강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받고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과학영재교육의 요람인 경북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황 보고와 함께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둘러보았다. 특히, 경북과학고 이전 검토 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때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러 일으켰던 포항양덕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소 시설의 안전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교장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이영식 교육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안전에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위원회

제2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상북도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 확정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활동을 통해 당초예산 보다 6,508억원이 증가한 7조 9,920억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토록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총괄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실 · 국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4일에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계속하여 최종안을 의결했다.

계수조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출부문에서 4,691억원을 요구한 집행부안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 12억원, 청사 환경조성 예술작품 구입(신청사) 3억원 등 20건 31억여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특히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최태림)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과 같은 의회와 집행부, 언론기관 등에서 관심도가 높고 쟁점이 되는 예산안의 조정에 있어서는 예비심사를 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은 물론, 집행부의 설명도 다시 한번 듣고 검토하는 등 세밀하고 철저한 심사활동을 진행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법정 · 의무적 경비의 과 · 부족분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심사방향으로는, 먼저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당초예산심사 때에 삭감 또는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간의 환경이나 여건의 변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축적으로 심사했고,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쳤는지, 연도 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 등 사업의 적시성을 검토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단 한건의 증액도 없는 삭감위주의 심사원칙을 지켰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신도청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추경편성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77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돌입…

1년간 활동계획보고서 채택으로… 도의회 역사상 23년만에 첫 가동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5월 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경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위한(안동, 비례) 부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앞으로 1년 동안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의 활동계획서에 따르면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구성일(3. 26)로부터 1년간(2016. 3. 25) 활동하게 되며,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조례, 조례제정 목적을 완료하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 등을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특히 지방자치제 정착과 지방분권화, 규제완화 시책에 맞지 않거나 어문규정 표기법에 틀린 조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정대상 조례를 발굴한다. 점검대상 조례는 도청 소관 478개(조례 373, 규칙 105)이며, 교육청 소관 130개(조례 58, 규칙 72)로서 모두 608개에 달한다. 조사방법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하나하나 조사한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 점검대상 조례를 선별하고, 2016년 1월과 2월 중에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3월에 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여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오늘 활동계획서를 채택함으로써 23년만에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이며, 이에 따라 도민들이 조례에 의한 행정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조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에 도의회 주관으로 철저한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5분 자유발언

독도방문 활성화 및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 촉구

남진복 의원 (울릉)

남진복(울릉) 의원은 독도 현지에서 개최된 제277회 임시회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발 디디기가 힘든 실정을 토로하며, '전 국민 독도땅 밟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울릉도 · 독도 방문의 최대 걸림돌인 고액의 여객운임을 대폭 할인함으로써 독도가 경상북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을 감안하고 3백만 도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도사랑 여객운임 할인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울릉도 관문인 도동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울릉학생체육관 부지 무상이관 · 이용으로 독도 수호의 전초기지인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88올림픽고속도로 명칭변경 강력 촉구

박용선 의원 (비례)

박용선(새누리당, 비례) 의원은 "88올림픽고속도로는 경북도내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지정학적 위치, 지명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름"이라며 "올해 연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영호남이 상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선 기획 당시 정부 내부에서 동서고속도로, 소백산고속도로, 지리산고속도로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88올림픽 고속도로」란 이름을 제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2015년 6월이면 개통 31년을 맞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영호남을 관통하는 상징적 이름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며 경북도가 앞장서서 동서화합 차원에서 호남지역 시 · 도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가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4. 10.
– 제안이유 : 금년 6월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북개혁추진단」의 한시정원을 일반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과학기술정책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코자 함.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4. 10.
– 제안이유 :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점 사업으로 도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자 민 · 관 합동개발방식(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경상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4. 10.
– 제안이유 :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점 사업으로 대용량 ESS 설치 및 친환경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연료전지) 설치 등 총구축비 3,902억원으로 도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자 민 · 관 합동 개발방식(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119억원 상당 규모의 현금을 출자하여 경상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 발의자 : 박성만 의원 외 11인 2015. 4. 10.
– 제안이유 :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수도권은 공룡화되어 많은 비효율을 낳고 있는 반면, 지방은 지역경제 침체와 공동화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 들어 또다시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와 함께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촉발된 도내 소재 지방대학교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은 수도권 분산정책과 지역의 균형발전 취지에 정면 위배되며 이에 따라 지역인구 유출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은 자명함. 이에,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개선, 지방대학의 실질적 육성 등 현실적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절대 불가함을 촉구하고자 함.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4. 10.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이정호 의원 외 2인 2015. 4. 10.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빈곤 문제 해결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발의자 : 정영길 의원 외 19인 2015. 4. 19.
– 제안이유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 발의자 : 최병준 의원 외 3인 2015. 4. 10.
– 제안이유 : 경상북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 발의자 : 구자근 의원 외 8인 2014. 11. 28.
– 제안이유 :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체육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경제적 문제, 사회의 관심부족 등으로 생활체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 · 아동 · 청소년 · 여성 · 장애인 등에게 체계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건설소방위원장 2015. 4. 29.
– 제안이유 :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개발, 분양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규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건설소방위원장 2015. 4. 29.
–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장경식 의원 외 9인 2015. 4. 10.
– 제안이유 :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 등 여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4. 10.
– 제안이유 :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중앙지원사업 반영과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법정 ·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안전분야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 발의자 : 한창화 의원 외 10인 2015. 4. 10.
– 제안이유 :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홍보 · 역사관"에 전시할 소중한 사료(史料)를 찾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개도 70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홍보 · 역사관"에 전시할 물품을 아래와 같이 기증받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수집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5년 7월 31일까지

2. 수집물품

- 의원 재직시 개인사용 물품(신분증, 당선증, 선서문, 필기구, 수첩 등)
- 의원 배지, 명패, 의사봉, 의회현판, 의원명부 등
- 발간자료 및 홍보자료(의정백서, 의회보, 소식지, 회의록, 의회수첩, 의회사 등)
- 역사적 사건 및 이슈관련 자료(문서, 서류, 책자, 사진 및 CD, 고서적, 필름 등)
- 해외교류(친선도시) 방문 기념품, 의회방문 기념품
- 기관간 협약체결서, 촉구 · 결의 · 건의문
-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물품

3. 수 집 처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공보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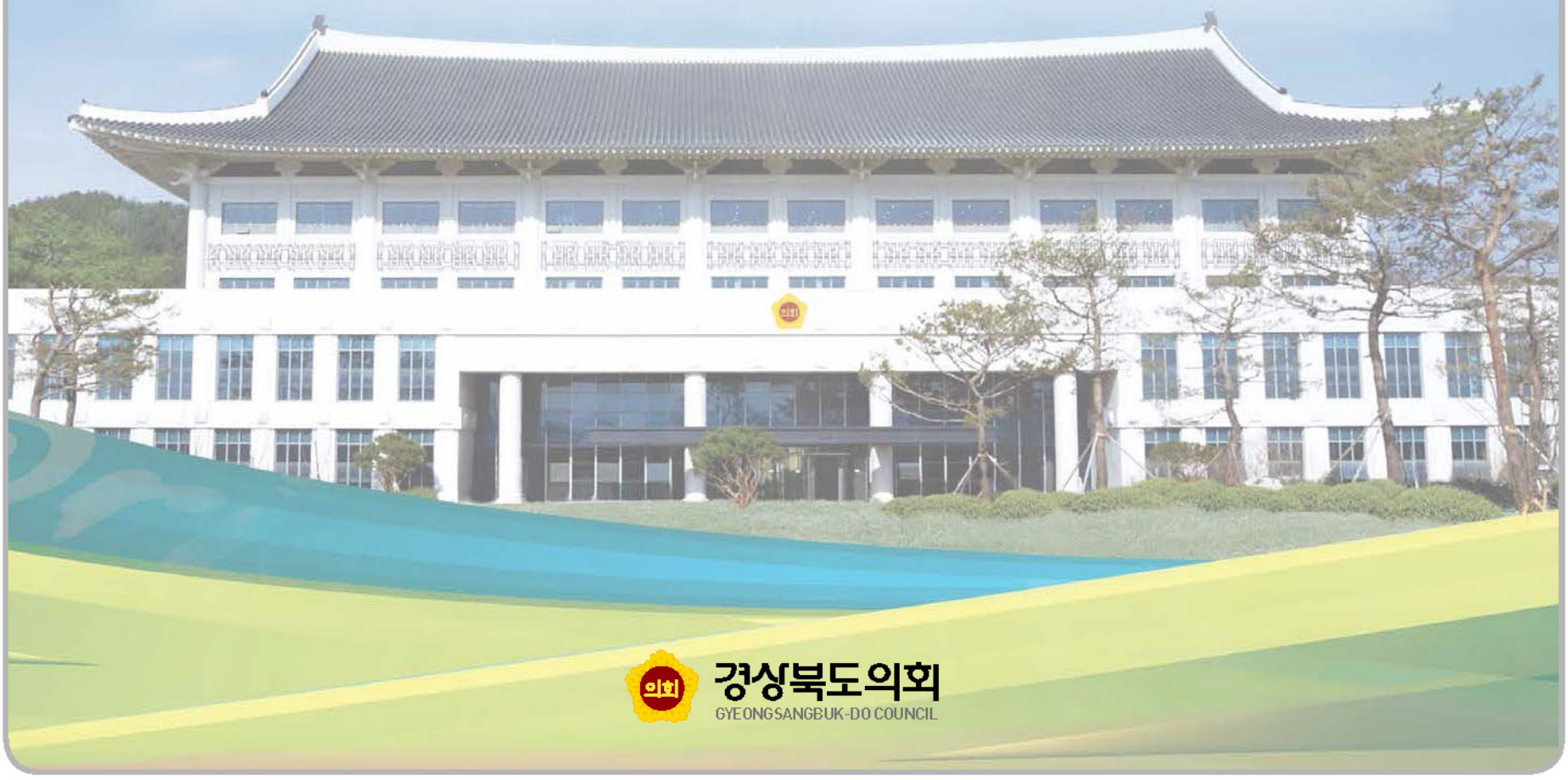
4. 제출방법 : 우편(택배, 등기) 또는 자택 직접방문

- 우편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공보담당

※ 우편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주시면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 기증한 물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물품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경상북도의회에 귀속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053-602-5125~7, 5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증하신 물품을 전시시 제공자 성명 표기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